

 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24. 4. 23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농업기술원	보도자료 PRESS RELEASE	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	김창윤 ☎760-7801
		특화작목육성팀장	현상철 ☎760-7821
		홍보담당자	김미리 ☎760-7514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(웹하드)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
		후속자료 : 없음	

2024년산 감귤 첫 수확 출하

- 남원읍 위미리 22일 첫 수확...당도 11° Bx, 산함량 1.0% 내외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(소장 김창윤)는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과원(대표 김한규)에서 2024년산 첫 하우스감귤이 출하됐다고 밝혔다.
- 제주산 하우스감귤은 남원읍 위미리에서 2022년 4월 20일, 지난해 4월 19일에 이어 올해는 22일 처음으로 수확했다.
- 이번에 수확된 하우스감귤은 극조생 온주밀감으로 지난해 11월 3일부터 극조기 가온을 시작해 중간 단수 등 철저한 물 관리 등으로 품질을 높였다.
- 올해 김한규 농가가 첫 출하하는 하우스감귤은 평균 당도 11브릭스 이상으로 7톤 내외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. 수확한 감귤은 대부분 감귤농협을 통해 대형마트로 유통될 예정이며 출하 가격은 지난해보다 10%가량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.
- 최승국 기술보급담당관은 “하우스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지도를 강화하겠다”며 “농가에서도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완숙 감귤만 출하하도록 출하 전 품질관리에 힘써줄 것”을 당부했다.